



5년  
전주시-계유스시, 경제 협력 '맞손'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음 5월 17일) 제37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큼'

민간주도 창업지원  
성장단계별 맞춤 등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창업하기 좋은 전북' 실현을 목표로 △민간주도 창업지원 △공공실증 기반 판로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벤처투자 인프라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티프스(TIPS) 운영사 6곳을 선정하고, 유망 스타트업 60개사를 발굴·육성하는 전략에 착수했다.

티프스는 민간이 1억원 이상 선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17억원까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대표 창업 프로그램으로, 각 운영사들은 3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TIPS 추천·육성에 나선다.

창업지원 공간도 확대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전주한옥마을에 민간 스타트업 지원기관들이 집적된 '키움공간'을 개소한 데 이어, 익산역 인근에 식품·바이오 특화 키움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 제품의 실증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형 스케일업 실증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17개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예비·초기·도약단계 기업 381개사에 총 191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청년혁신기(33팀), 전북형 창업



이동 노동자에 '시원한 응원'

11일 전주시 신시가지 비비어광장에서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쉼 없이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생수 나눔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패키지(13개사), 창업도약패키지(19개사) 등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판로, 투자유치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신보 등과 연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지원도 병행되며, 제도전 성공패키지(4년간 92억원)와 중장년 창업 특화센터(5천만원)를 통해 재창업자와 중장년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사 및 유망 창업기업들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벤처·스타트업 30개사를 모집해 6~12월 간 IR 라운드 3회를 개최하고, 투자사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도 진행 중이다. 도는 중기부의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3개 펀드 850억원을 조성 중이며, 6월까지 전북 벤

처펀드를 운용할 6개 투자사를 추가로 선정해 연내 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 전체 벤처펀드는 총 31개로 늘어난다.

또한 도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도와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통한 공동 기술사업화에 착수했다.

아울러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사업도 신규 추진돼, 유망 벤처·스타트업 30개사를 모집해 6~12월 간 IR 라운드 3회를 개최하고, 투자사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도 진행 중이다. 도는 중기부의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3개 펀드 850억원을 조성 중이며, 6월까지 전북 벤

처펀드를 운용할 6개 투자사를 추가로 선정해 연내 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 전체 벤처펀드는 총 31개로 늘어난다.

특히 지난 3월 전주에 비수도권 최초로 '전북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개소하고, 도내 9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대상 기술창업비자(OASIS)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했다.

6월부터 희망 외국인들에 대한 창업 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교육 등 외국인 기술창업비자(D-8-4) 취득과정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창업이 전북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창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민주, 검찰개혁 핵심 입법과제 공개

### '검찰청법 폐지' 골자 공소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 설치·운영 관련 법안도 담아  
"검찰 권한 분산으로 이번 정부서 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관련사진 3면)

이들 국회의원 5명은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립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를 골자로 한 4대 개혁 법안을 일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용민 의원은 "2020년 12월,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동시에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 개혁은 단순히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구조적 개혁"이라며 "정치적 수사, 포적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더는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선택적 수사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적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검찰의 칼이 국민을 겨누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수사는 더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한 검찰 시스템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기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검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표된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이 대통령 "자본시장 불공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공정 거래 행위자 엄벌"… 거래소에 조사 조직·인력 확충 지시

범 기대감으로 취임 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

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당부했다.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발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추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과징금을 몰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하라고 당부하며 '코스피 추가지수 5000 포인트 시대'를 열어가지고도 격려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이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 35%를 넘

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추가조작 등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 대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뉴시스

**4월 정읍벚꽃축제**

**8월 정읍물빛축제**

**10월 구절초축제**

**10월 정읍사문화제**

세인 중심, 으뜸 정읍

**사계절 즐기는 정읍 축제**

벚꽃축제	4월 정읍천변
물빛축제	8월 정읍천변
구절초축제	10월 구절초지방정원
정읍사문화제	10월 정읍사공원